

## 의정 기사판



### 제8대 고양시의회 의사일정 마무리

고양시의회는 6월 23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끝으로 계획된 제8대 고양시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7건을 각각 처리했다.

제263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이흥규 부의장은 “4년 동안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33명의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제8대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가 고양시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제9대 고양시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고양시의회사무국(국장 권지선)은 6월 24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 당선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의 조기 정착 도모를 위해 제9대 고양시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당선인 간 상견례, 의원배치 및 신분증 교부 등이 있었으며 지방의회운영, 의사일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도 안내되었다.

제9대 고양시의회는 7월 1일 10시에 제26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장단 선출 후 개원식을 가졌으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원구성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제9대 고양시의회 의원은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34명이 선출되었으며 삼선이상 의원 4명, 재선의원 8명, 초선의원 22명이고, 남성 의원 17명, 여성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독자문예마당



## 굳은살

글. 김수연(일산서구 일산동)

아침 일찍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누워서 끄끙 앓는구나. 병원 가자고 해도 좀 쉬면 낫는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어.”

“엄마,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이들을 등교 시키고 서둘러 친정으로 갔다. 엄마 말대로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 쓰고 식은땀을 흘리며 끄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어디가 아파요?”

“애들은 어찌고 왔어?”

“학교 갔지요. 아버지, 병원 가야겠어요.”

“병원은 무슨. 좀 쉬면 낫겠지.”

아버지는 한사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일으켜 억지로 옷을 입혔다. 응급실에 도착해 피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다. 아버지는 처음 누워본 응급실 침대가 불편하고 어색한지 허공만 바라보았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찌르가무시병 진단을 받았다.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진드기에게 물린 자국이 배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찌르가무시병은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 것이 몸살과 비슷한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할 수 있단다. 아버지는 바로 병실에 입원해서 수액을 꽂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엄마는 많이 놀랐는지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입원해 치료를 받자 빠르게 호전되었다. 식사도 하고 다행히 열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병원 약이 좋긴 좋다. 이제 몸이 가뻔해졌어.”

“아버지가 계속 고집 부려 병원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했잖아요.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죠.”

“그래, 알았다. 알았어. 바쁠 텐데 어여 가봐.”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가보라며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 손을 잡았다. 거친 나무를 만지는 것 같았다. 이 손으로 평생 땅을 갈았다. 허리가 굽도록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처럼 일만 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올라왔다. 못생기고 굳은살이 가득한 손으로 자식들을 먹이고 입혔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당신만 바라보는 입들이 무서웠단다. 지금 머리카락은 들성들성 하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몸만 남았다. 칠십 평생 동안 병원이라고는 모르고 사셨는데 그 동안 돌보지 않았던 몸이 이제 와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아버지, 내일 또 올 테니 식사 잘 하고 쉬세요.”

“바쁘는데 올 거 없어. 이제 다 나왔단니까.”

인사하고 급하게 돌아서는데 자꾸만 눈이 따끔거리 아버지 얼굴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다.